

2017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 외식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외식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외식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음.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외식업체(5,042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외식업체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사업장 영업정보 및 경영실태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함.

조사배경 및 목적

- 식품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외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정보인프라는 매우 부족하여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정보 효율성이 높지 않은 편임.
- 본 조사의 목적은 외식업체의 세부적인 경영실태를 조사 및 제공함으로써 외식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정보 제공을 통하여 외식업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는 것임.
- 또한, 정보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와 사업실패 증가, 소자본 창업에 따른 경쟁심화 및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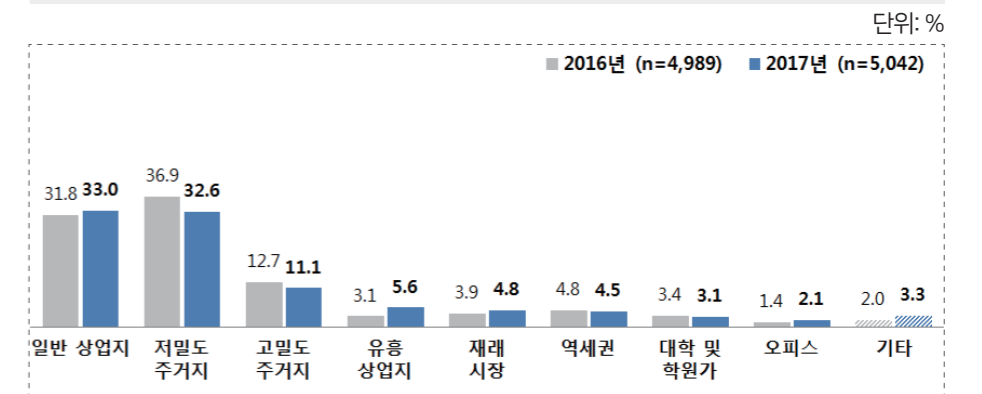
조사 체계

-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외식업체 사업주 및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제 조사 표본 수는 5,042개 업체임.
- 외식업 경영실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식업체를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로 구분하였으며, 조사 모집단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기준으로 함.
- 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목표 모집단 : 2017년 8월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 영위 업체
 - 조사 모집단 : 2017년 8월 기준 외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리스트
-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약 2개월이며, 조사 방법은 전문 면접원이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음.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주요 조사 문항은 매출액, 객단가, 근로자 수, 인건비 등임.
-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는 전체 외식업체와 일반음식점, 한식 외식업체로 구분하여 주요 조사결과와 정보를 제공함.

2018년도 식품산업 여건 전망

- 현 사업장 종사기간은 평균 6.7년으로 조사되었고, '5년 미만'이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외식업체의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10.9시간, 30일 기준 평균 영업일수는 27.2일로 나타났고, 평균 테이블 수는 10.3개 수준임.
- 외식업체의 면적 규모는 '50m²~100m²미만'이 3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면적은 88.1m² 수준으로 분석됨.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평균 면적이 95.0m²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에 비해 6.9m² 가량 더 넓고, 서양식의 면적(153.2m²)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상권 분포의 경우 '일반상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밀도 주거지'가 32.6%로 높게 나타남. 일반음식점은 '저밀도 주거지'(36.4%)가 가장 높았고, '일반상업지'(31.8%), '고밀도 주거지'(9.7%), '재래시장'(5.6%) 등의 순서임.

외식업체 사업장 상권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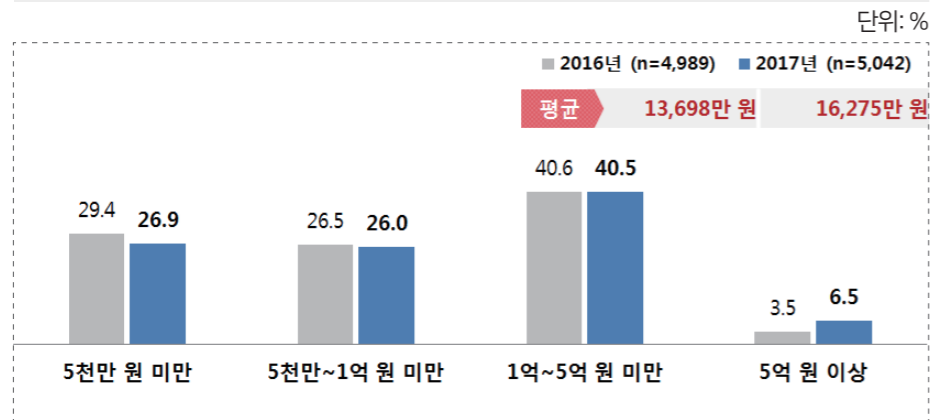


- 음식점 업종으로는 '한식'으로 분류된 경우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식 세분류별로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45.8%)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37.4%)과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12.6%), 한식 면 요리 전문점(4.3%) 순서임.
- 외식업체의 운영 형태는 '비프랜차이즈(독립운영)'가 79.4%, '프랜차이즈'가 20.6%로 조사되어 개인 소유의 독립운영 형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82.5%는 현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임차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 외국식(96.7%), 지역별로는 서울권(97.5%)이 임차비율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임차비율은 93.7%로 비프랜차이즈(79.6%)보다 높았음.

전체 외식업체 경영실태

- 외식업체 경영실태의 주요 조사 문항은 매출액, 객단가,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 근로형태별 월 평균 근로자 수, 근로형태별 월 평균 인건비, 경영상 애로사항, 2016년 업종 전환 여부 등의 영업사항과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이 포함되었고, 조사 결과에 대해 업종별·지역별·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봄.
- 외식업체의 2016년 연매출 평균은 1억 6,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서양식(3억 745만 원)과 제과점업(3억 5,716만 원)의 매출액이 높고, 지역별로는 서울권(2억 3,112만 원)과 수도권(1억 9,014만 원)의 매출액이 높았음.
 -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도(2억 5,433만 원)보다 14.8% 감소한 2억 1,661만 원, 비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전년도(1억 1,878만 원)보다 25.2% 증가한 1억 4,873만 원으로 나타남.

전체 외식업체 매출액 분포



- 객단가 평균은 15,447원으로 전년(13,783원) 대비 12.1% 상승함. 업종별로는 주점업(39,514원), 지역별로는 서울권(21,759원),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 외식업체(54,011원)의 객단가가 높았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객단가는 10,870원, 비프랜차이즈의 객단가는 이보다 높은 16,638원 수준임.
- 월 평균 근로자 수는 2.37명으로 전년 대비 0.1명이 감소함. 업종별로는 제과점업(4.01명), 지역별로는 서울권(2.75명),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7.65명) 외식업체의 근로자 수가 많았음.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자 수는 2.96명, 비프랜차이즈는 이보다 적은 2.22명으로 조사됨.

- 외식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82.6%)과 동일업종 내 경쟁(68.1%), 인건비 상승(67.8%) 등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 2016년 업종 전환 비율은 1.9%로, 2015년 업종 전환 비율(3.3%)보다 감소함. 업종별로는 서양식(2.4%), 지역별로는 호남권(2.4%),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원 이상(2.5%) 외식업체의 업종 전환 비율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 전환 비율은 2.0%, 비프랜차이즈는 1.9%로 나타남.
-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대비 3.0%p 줄었고, 식재료비 비중은 30.7%, 고용인 인건비는 15.6%, 기타비용은 29.4%로 나타남.
 - 영업이익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지역별로는 호남권, 매출액 규모별로는 1억 원~5억 원 미만의 영업이익률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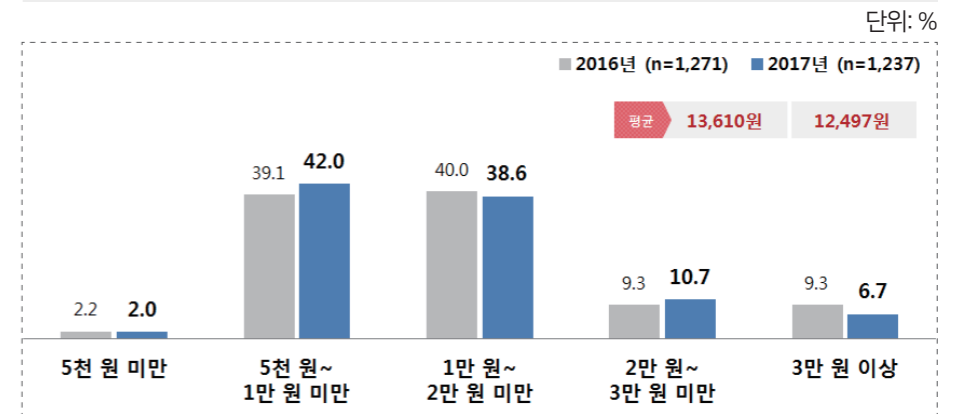
일반음식점 외식업체 경영실태

- 일반음식점의 2016년 연매출 평균은 1억 6,5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업종별로는 서양식(3억 745만 원)과 일식(2억 9,891만 원)의 매출액이 높았음. 지역별로는 서울권(2억 907만 원)과 수도권(1억 8,262만 원) 매출액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의 매출액은 전년도(3억 7,330만 원)보다 17.1% 감소한 3억 959만 원으로 나타났고, 비프랜차이즈는 전년도(1억 3,736만 원)보다 10.1% 증가한 1억 5,120만 원 수준임.
- 일반음식점의 객단가 평균은 12,385원으로 전년(13,733원) 대비 9.8% 하락하였고, 월 평균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2.43명으로 나타남. 경영상 주요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84.6%)과 인건비 상승(70.5%) 등으로 나타났고, 업종 전환 비율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2.0%로 조사됨.
- 일반음식점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6%p 감소하였고, 식재료비는 35.2%, 고용인 인건비는 15.6%로 나타남. 영업이익률의 경우 업종별로는 기타 외국식,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영업이익률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비프랜차이즈 업체는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한식 외식업체 경영실태

- 한식 외식업체의 2016년 연매출 평균은 1억 5,9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함. 업종별로는 한식 해산물류와 한식 육류의 매출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권(1억 8,812만 원)과 충청권(1억 8,163만 원)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이 높았음. 프랜차이즈 한식 외식업체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23.2% 감소한 2억 8,940만 원으로 나타났고, 비프랜차이즈는 전년보다 10.7% 증가한 1억 4,734만 원 수준임.
- 한식 외식업체의 객단가 평균은 12,497원으로 전년 대비 8.2% 하락하였고, 월 평균 근로자 수는 2.36명, 업종 전환 비율은 2.1%로 나타남.

한식 외식업체 객단가 분포



- 한식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고, 식재료비 비율은 35.6%, 고용인 인건비는 15.0% 등으로 나타남. 영업이익률은 한식 일반음식점업, 한식 면류, 육류, 해산물류의 순서로 높았음.

저자정보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061-820-2326), lkilki@krei.re.kr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061-820-2312), kkphil@krei.re.kr
 박성진 부연구위원 (061-820-2025), seongjin20@krei.re.kr
 한정훈 연구원 (061-820-2109), madam4007@krei.re.kr
 임승주 연구원 (061-820-2254), chsj7572@krei.re.kr
 김다혜 연구원 (061-820-2322), dahk@krei.re.kr